

<2013.11.21.>

전 북 일 보

“생태계 연계한 교육공간·생태관광 중심지로”

고창 갯벌 방문자센터 심포지엄
학계 전문가 총괄운영 방안 논의

고창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인서(해양환경관리공단), 문인아(갯벌센터네트워크 의장), 유영엽(신안증도갯벌생태전시관), 고창군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주민대표 김수남씨가 참여하여 방문자센터 총



지난 19일 고창 군립도서관에서 열린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 심포지엄에서 해양관리공단 황인서 씨(맨 오른쪽)가 방문자센터 총괄 운영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괄 운영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갯벌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돼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방문자센터가 고창의 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연계한 문화다양성을 보전하는 교육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연안습지보호지역, 랍사르습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갯벌방문자센터(심원면 두어리)를 건립중에 있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고창 갯벌방문자센터 활성화 심포지엄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 등 논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립된 갯벌방문자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 심포지엄이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주로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갯벌센터의 운영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특히 고창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연계한 문화다양성을 보전하는 교육공간으로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창갯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

“고창 갯벌센터, 생태관광 중심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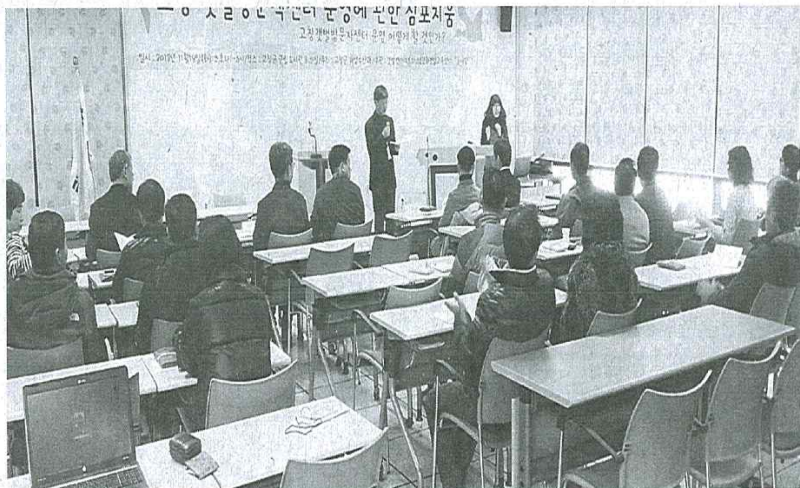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교육공간 활용

학계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건립하는 갯벌방문자센터를 교육과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군은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인 심원면 두어리 385-45번지에 지상 4층의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고창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가졌다. 고창군 제공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어 황인서(해양환경관리공단), 문

인아(갯벌센터네트워크 의장), 유영업(신안증도갯벌생태전시관), 이강수 고창군 해양수산과장, 주민대표 김수남 씨가 참여하여 방문자센터 총괄 운영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은 이번 논의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갯벌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

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자센터가 고창의 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연계한 문화다양성을 보전하는 교육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새전북신문



고창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갯벌방문자센터 운영 심포지엄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창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1동(4층 건물)의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심원면 두어리 385-45번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동희 기자

전북매일신문



고창군은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창군, 갯벌센터 운영 심포지엄 열어

역할·기능·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 발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창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창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1동(4층 건물)의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심원면 두어리 385-45번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 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전북중앙신문



고창군은 19일 심원면 두어리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 1동에 갯벌방문객센터를 건립,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해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실시했다.

고창군, 갯벌방문객센터 운영 심포지엄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

방문객센터 역할-운영방안

학계전문가 초청 지정토론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창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 1동(4층 건물)에 갯벌방문객센터를 건립(심원면 두어리 385-45번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객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방문객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객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황인서(해양환경관리공단), 문인아(갯벌센터네트워크 의장), 유영업(신안중도갯벌생태전시관), 고창군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주민대표 김수남씨가 참여하여 방문객센터 총괄 운영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갯벌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고창갯벌 방문객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구했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센터가 고창의 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연계한 문화다양성을 보전하는 교육공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새만금일보

고창군, 갯벌 방문자센터 운영 심포지엄

고창군은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방문자센

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황인서(해양환경관리공단), 문인아(갯벌센터네트워크 의장), 유영엽(신안증도갯벌생태전시관), 고창군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주민대표 김수남씨가 참여해 방문자센터 총괄 운영

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갯벌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주매일

고창갯벌 방문자센터 운영 심포지엄

군, 생태계 연계 문화다양성 보전 · 지역 발전 등 노력키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창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연안습지보호지역, 란사르습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창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1동(4층 건물)의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심원면 두어리

385-45번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방문자센터

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황인서(해양환경관리공단), 문인아(갯벌센터네트워크 의장), 유영엽(신안증도갯벌생태전시관), 고창군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주민대표 김수남씨가 참여하여 방문자센터 총괄 운영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갯벌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갯벌센터, 올바른 운영 어떻게?”

지난 19일 학계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
해답은 교육 공간 & 생태관광 중심지 개발



지난 19일 고창군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고창 갯벌방문센터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창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창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

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1동(4층 건물)의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심원면 두어리 385-45번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

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황인서(해양환경관리공단), 문인아(갯벌센터네트워크 의장), 유영업(신안증도갯벌생태전시관), 고창군이강수 해양수산과장, 주민대표 김수남씨가 참여해 방문자센터 총괄 운영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갯벌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자센터가 고창의 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연계한 문화다양성을 보전하는 교육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훈 기자

전 주 일 보

“지역 특성 반영 ·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고창군, ‘갯벌방문자센터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고창군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창갯벌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지 배후지에 1동(4층 건물)의 갯벌방문자센터를 건립(심원면 두어리 385-45번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민병근 교수, 한국 환경 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 방문자센터, 환경 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황인서(해양환경관리공단), 문인아(갯벌센터네트워크 의장), 유영업(신안증도갯벌생태전시관), 고창군 이



고창군은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수 해양수산과장, 주민대표 김수남 씨가 참여하여 방문자센터 총괄 운영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갯벌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창갯벌 생태계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광 주 일 보



‘고창 갯벌센터 어떻게...’ 심포지움

고창군은 20일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심포지움에는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

연 연구원, 성균관대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의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펼쳤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